15-11-2026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옴 샨티 **2012/03/20**

너희들의 얼굴과 활동에서 충족감의 힘을 훈습하고 아버지 브라마처럼 되어라**.**

끊임없이 행복을 유지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나눠주어라**.**

오늘, 밥다다는 그의 앞에 앉아 있거나 먼 곳에 있는 충족감의 보석인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각 자녀들 하나하나가 그의 충족감의 힘으로 빛이 나고 있고, 미소를 띠고 있으며, 만남을 축하하고 있다. 이 충족감의 힘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힘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성취가 들어 있는 것이다. 충족감의 힘을 훈습하는 충족감의 보석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사랑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사랑 받으며, 또한 가족으로부터도 사랑 받는다. 왜냐하면 충족감이 있을 때에는 모든 힘들이 그 충족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충족감의 힘의 분위기는 온 사방으로 퍼진다. 충족감의 보석인 영혼들은 절대로 마야에게 패배당할 수 없다; 마야 자신이 패배한다. 충족감의 보석인 영혼들은 모든 이의 마음을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 수 있다. 충족감의 보석인 영혼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마야의 격동과 일들을 마치 만화쇼를 구경하듯이 경험한다. 따라서 각 자녀들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너희 스스로가 충족감의 힘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느냐? 너희 자신에게 물어 보아라: 나는 충족감의 보석인가? 어떤 자녀들은 그들이 때때로 그렇다고 말한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밥다다는 이 "때때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밥다다는 언제나 각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사랑과 기억과 행복을 준다. 따라서 밥다다는 "때때로"라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 밥다다는 너희가 이 "때때로"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는가를 알고 싶다. "때때로"라는 말은 브라민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오직 "언제나"뿐이다. 따라서 오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야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진 너희 자녀들은 이 "때때로"이라는 말을 끝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끝낼 수 있겠느냐? 밥다다는 너희들에게 어떤 종류의 격동이라도 갑자기 올 것이라고 오랫동안 말해왔다. 그것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만일 너희가 아직까지도 "때때로"라는 산스카라를 갖고 있다면, 왕국의 행운에 권리를 항시 차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가 가슴속에 아버지 브라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머물고, 함께 돌아갈 것이고,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약속이다, 그렇지 않으냐? 머리를 끄덕여 보아라! 얼마나 확고하냐? 아버지 브라마가 "때때로"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는 언제나 암릿 벨라에 너희 모두에게 사랑과 기억을 보냈고,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지식에 관련된 것들, 사랑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열의와 열성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말했었다. 만일 바바가 너희들에게 밥다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한다면, 너희들 모두가 양손을 다 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확실하냐?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또한 그 사랑하는 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질 것이다. 아버지 브라마는 절대로 아버지 쉬바에게 어떤 일이 때때로만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를 따랐고 또한 너희들도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아버지 브라마는 가슴속에 너희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브라마 쿠마리다, 너희의 이름은 쉬브 쿠마리가 아니다. 그러니 아버지 브라마에 대해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 브라마가 무슨 말을 하든 브라마 쿠마리들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바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에 너희를 바칠 것이냐? 그의 지시에 대해서다. 그분(쉬브 바바)이 무슨 말을 했든 그(브라마 바바)는 행했다. 왜냐하면 브라마 바바 곁에는 또한 쉬브 바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밥 다다, 밥 다다"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냐?

오늘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이 "때때로"라는 말을 끝내기를 원한다. 너희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의 동반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사랑 때문에 너희 자신을 그에게 바치는데, 여기서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을 염주의 승리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저 이 단어를 바치면 된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염주의 구슬로 여기느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승리한다고 여기느냐? 어떤 자녀들은 브라민의 수는 아주 많은데, 염주는 108명 밖에 안 되니, 오직 108명만이 염주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108명의 염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완전해지고 승리한다면, 밥다다가 그 중간에 줄을 더 추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승리를 해야 한다. 어떤 자녀들은 생각한다: 나는 번호를 받을지 받지 못할지 모르겠다. 만일 너희들이 완성이 되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번호를 줄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앞에서 비록 마지막 자녀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자녀 역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자기 산스카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해도,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았고, "나의 바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비록 그가 어떤 약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해도, 그는 최소한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최소한 그는 사랑을 가지고 "나의 바바"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바는 또한 앞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번호의 자녀조차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시선, 자비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오늘 밥다다는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말한다: 다른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저 너희 자신을 가치 있는 영혼으로 만들기만 해라. 너희 자신을 카르마 요기 영혼으로 만들어라.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성취를 얻는 축복을 줄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그 자녀를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암릿 벨라에, 밥다다는 이 나라와 외국의 사방 곳곳을 순회했다. 밥다다가 순회를 할 때는 보통 너희의 특별한 조상 다디들도 바바와 함께 간다는 말을 너희들은 앞에서 들었다. 그러면 순회를 하는 동안 바바가 무엇을 보았겠느냐? 너희들도 그것을 안다. 너희들은 아주 좋은 생각들을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할 것이다. 우리는 단연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손을 잡고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이 무엇이냐? 아버지 쉬바는 천사체 형태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손이냐? 그것은 슈리마트의 손이다.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유행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손이 슈리마트의 손이다. 따라서 너희들 모두 너희의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움직여 나간다, 그렇지? 너희들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모든 발걸음을 슈리마트에 따라 내디뎠고, 너희들 모두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육신의 형태 안에서의 본보기였다. 무체인 분은 제쳐놓고, 아버지 브라마는 육신의 형태 안에서 너희의 동반자였다. 아버지 브라마가 아버지의 슈리마트의 손에 그의 손을 내주고 천사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따르고 있겠지? 너희들은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에서 그를 따라야 하느냐? 그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너희 모두가 아버지 브라마의 얼굴과 그의 활동들을 안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지각 속에서 아버지 브라마를 떠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냐? 하루의 일과표가 무엇이었든 아버지 브라마는 그것을 했다. 그는 육신의 몸 안에 있으면서, 여기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 너희 모두가 아버지 브라마의 인격을 안다. 그러니 아버지를 따라라.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의 모든 발걸음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복습해왔다. 너희들은 그의 여덟 단계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읽었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그저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다.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은 아버지에 대해 사랑을 갖고 있고, 두 아버지를 모두 사랑한다. 너희들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들었다. 사랑의 실질적인 형태는 아버지 브라마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마음의 사랑이다. 일부 자녀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자신이 아버지 브라마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먼저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에 관해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 브라마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든 그것을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따르려면 먼저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해라.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라. 첫째로 그것에 관해 생각하고, 그런 다음 따라라. 아버지 브라마를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너희들은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를 따를 용기가 있느냐?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손을 들어 보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해라.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밥다다는 특별히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브라마처럼 충족감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길 원한다. 모든 다른 힘들은 이 충족감의 힘 하나에 따라올 것이다. 따라서 오늘 밥다다의 특별한 축복은 “충족감의 힘을 가져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충족감을 버리지 말아라. 어떤 자녀들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충족감을 갖는 것은 쉬운데,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왜 그것을 너희의 가슴속에 간직하느냐? 이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저것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성질은 이렇고, 저 사람은 성질은 저렇다. 이것을 너희 가슴속에 간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너희의 가슴속에 앉혔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분을 너희의 가슴속에 앉혔다, 그렇지 않으냐? 고개를 끄덕여 보아라. 그를 거기에 앉혔느냐? 확실하냐? 아니면 그를 없앴다가, 다시 거기에 앉히기도 하느냐? 만일 너희가 그를 너희 가슴속에 앉혔는데,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두었으면, 아버지와 함께 또한 이런 것들도 가슴속에 간직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너희 가슴속에 간직하지 말아라.

밥다다는 앞에서도 언제나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갖고, 너희의 좋은 염원을 사용하는 이 방법을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어쨌든, 너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그 사람이 한 일)은 나쁘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뭔가 나쁜 것을 주면, 너희는 그것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나쁜 것인데, 그렇다면 왜 너희가 그것을 지각 속이나 가슴속에 간직해야겠느냐? 왜 나쁜 것을 받아들였느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너희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질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아버지와 대등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아니면 "나는 대등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밥다다는 이제 각 자녀 하나하나가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선생들은 이렇게 될 것이냐? 밥다다는 선생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 왜 그가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가디에 앉는 용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선생들아, 너희들은 용기가 있다, 그렇지 않으냐? 아버지는 각 선생에게서, 각자의 미래(future)가 너희의 모습(feature)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한다. 밥다다는 도구 선생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 모두가 동반자들이다, 그렇지 않으냐? 75년 전에 기숙학교에서 밥다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었다: 행복하고 행운 있는 - 각자의 얼굴이 그와 같아야 한다. 지금도 밥다다는 각 자녀의 얼굴이 행복하고 행운 있는 영혼의 얼굴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말을 통해 많은 봉사를 했고, 그것을 잘 했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합격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얼굴과 활동을 통해 봉사에서 앞으로 전진해라.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그의 얼굴과 활동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의 얼굴을 보면 모든 이들이 오늘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얼굴과 활동을 보며, 너희가 뭔가 특별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밥다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하게 되어라. 아버지를 따라라. 왜냐하면 때의 상태와 어떻게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밥다다는 각 자녀에게 "언제나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나눠주어라"라는 가르침을 주길 원한다. 너희들이 행복을 더 많이 나눌수록, 그만큼 너희의 행복이 더 늘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행복을 보며, 다른

이들은 최소한 5분이라도 행복해질 것이다. 만일 불행한 영혼들이 너희를 보며 5분 동안 행복해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아주 많이 좋아할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각 자녀가 자신의 얼굴과 활동 속에서 충족감의 힘을 훈습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훈습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앗챠.

오늘 처음으로 온 이들은 모두 일어서 보아라! 보아라, 너희들은 그들을 볼 수 있다. 클래스의 절반이 처음으로 온 이들이다. 너희 손을 들어라! 그들의 손들을 모두 보아라! 너희들의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다! 보아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희들의 동반자가 되었느냐! 축하한다! 수많은 축하를 보낸다! 너희 모두가 여기에 도달했다. 너희 모두가 밥다다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도달했다.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아버지 브라마를 따라라. 밥다다도 또한 너희 모두를 보며 기쁘다. 와, 자녀들이 왔다! 전체 가족이 행복하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이제 아버지 브라마를 따라라. 뭔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에게 의문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 그것은 문제들의 세계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너희의 선생에게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라: 2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이 문제가 아직도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주 늦게 왔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앞서 가길 원한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들은 뒤 쳐져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가길 원하는데, 앞으로 가려면, 그저 이 한 가지만 해라: 너희의 가슴속에 어떤 낭비적인 일도 간직하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 암릿 벨라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첫째로 너희들은 암릿 벨라를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밥다다가 너희에게 많은 훈련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루 종일 바쁜 일과 중에 어떤 한 가지 훈련을 계속 해라. 밥다다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다. 이따금씩 시간을 내서, 오래된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모두가 반드시 한 순간에 몸 없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때에는, 너희가 1초 만에 몸 없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훈련을 해라. 어떤 이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누가 아무리 바빠도, 만일 너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좀 마시러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몸 없이 되는 이 훈련을 1분 동안 연습해라. 그 때 가서는, 그것을 연습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때가 오면 자신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때에는 여러 생 동안의 이 육체의식의 연습(습관)이 너희로 하여금 몸 없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간을 내라. 하루 종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낼 수 있든 상관없이, 틈틈이 1초 동안 그것을 해라: 나는 몸 없는 영혼이다. 영혼의 형태에 안정해라. 육체의식이 너희를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오래된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모두가 이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밥다다가 한 동안 너희에게 이것에 관해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슈리마트의 손을 잡고 움직여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약속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함께 왕국으로 갈 것입니다”이다. 따라서 모두가 이 훈련을 해야 한다. 새로 온 이들 모두에게 말한다: “행복하고 번영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이들보다 앞서 나아가라.“ 앗챠.

밥다다는 멀리 앉아서 모든 것을 가슴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방의 모든 자녀들을 보고 있다. 모든 이의 사랑의 향기가 마두반에 와 닿고 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이가 빠른 속도로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 너희들은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행복을 주어야 한다. 너희들은 불행한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이에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모든 이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 봉사가 집중적으로 해라. 너희들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앗챠. 모든 이에게, 마음으로부터 많은 기억과 사랑을 보낸다.

축복**:** 변함없이 충족되고 명랑하게 되어, 너희의 휴식까지 단념하고 봉사해라. 봉사자는 낮이나 밤이나 자기 자신의 휴식까지 포기하고, 봉사에서 휴식을 경험한다. 그런 영혼들과 접촉하는 이들,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이들, 혹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이들은 마치 시원한 샘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가까움과 힘과 평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캄데누처럼 고귀한 인격을 가진 봉사자가 되어서, 항상 모든 이의 소망을 채워준다. 그런 봉사자들은 자동적으로 명랑하고 충족되어 지내라는 축복을 받는다.

슬로건**:** 이 지식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 공부에 주의를 기울여라. 아버지와 이 공부에 대해 똑같은 사랑을 가져라.

******* 옴 샨티 **O M S H A N T I *****

아비약트 신호 **-** 아버지 브라마와 같은 완전하고 완성된 단계를 경험해라**:** 낭비적이거나 죄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의문 때문이다. 낭비적인 생각들의 긴 줄은 “왜?”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완성은 오직 이 “왜?”라는 단어가 끝나야만 오는데, 그럴 때 그 줄이 시작될 것이다. “왜?”라는 단어가 끝날 때, 너희는 드라마의 운명에 안정되어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특별공지 사항**:** 이 달 세 번째 일요일의 요가 수련**.**

오늘은 이 달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녁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집단적으로 앉아서 요가를 합니다. 힘의 형태로 스스로 안정되어 지식의 태양에게서 강력한 광선을 흡수해서 세계 변화에 대한 봉사를 하는 데 이 광선들을 사용하십시오.